

四部誦惟目錄에 대한 研究

李 尙 鏞*

目 次

- | | |
|-----------|----------|
| 1. 序言 | 2.3 編纂動機 |
| 2. 四部誦惟目錄 | 2.4 內容分析 |
| 2.1 題目풀이 | 3. 結言 |
| 2.2 編纂時期 | |

1. 序 言

朝鮮朝의 大儒學者이며 麗韓十大文章家의 하나인 淵泉 洪奭周(1774-1842)는 그 晩年에 지은 그의 學問의 총 결산적 雜錄인 鶴岡散筆에서 讀書와 學問간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世間에서 보통 讀書를 學問이라고 하니 모름지기 독서를 하지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讀書란 學問의 한가지 일이므로 학문은 독서에만 그쳐서는 안된다.”¹⁾

이 글에서 淵泉은 독실히 讀書하는 것이 學問의 기본요건 중의 하나이긴 하지만 學問의 전체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글에서 淵泉은 讀書가 學問의 기본적인 바탕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사실상 당시 讀書의 개념은 현대와는 다르다. 현재와 같이 교양적인 측면보다는 儒家의인 道學 實現의 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 延世大學校 大學院 文獻情報學科 博士課程

1) 洪奭周, 淵泉集 影印本 卷7 鶴岡散筆 (서울 : 昨成社, 1984) p.101.

世恒以讀書者爲學 固可以不讀書 然讀書者 學之一事 學不止於讀書已也

淵泉은 어려서부터 讀書에 관심을 두어 弱冠 이전에 經史子集 전 주제분야의 서적을 모두 섭렵했을 뿐만 아니라, 37세 때(1810)에는 仲弟 吉周(沆澐, 1786-1842)를 위하여 分類順 解題目錄인 洪氏讀書錄을 편찬했고,²⁾ 그보다 약 20년 후인 50대 후반에는 季弟 顯周(海居, 1793-1865)를 위하여 誦讀目錄인 四部誦惟目錄까지 편찬한 것이다.

필자는 1987년 줄고 “洪氏讀書錄의 分類體系와 目錄記入法의 研究”에서 洪氏讀書錄에서 채용하고 있는 分類體系와 目錄記入法을 중심으로 四庫全書簡明目錄과 비교 분석한 바 있다. 필자는 동 연구에서 同 讀書錄이 단순한 讀書錄이 아니라, 淵泉이 자기 아우 吉周의 學問 方向을 잡아주고, 나아가 洪氏 門中과 우리나라의 諸後學을 위해 편찬한 分類順 選定圖書解題目錄이란 사실을 규명하였다.

필자는 당시의 연구 과정에서, 淵泉은 물론 그의 아우 沆澐 역시 형 못지 않은 뛰어난 學問의 소유자였으며, 그들 형제간의 學問의인 關係 또한 지극히 밀접함을 알 수 있었다.

필자가 淵泉 關係 著作을 찾으면서 淵泉의 著作과 관련된 것이 혹시 그의 동생 沆澐의 글 가운데에 수록되어 있지 않을까 해서 조사한 결과, 찾아낸 것이 바로 이 四部誦惟目錄인 것이다. 同 目錄은 沆澐의 저작 執遂念에 수록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四部誦惟目錄의 編纂動機를 살펴보고, 同 目錄이 洪氏讀書錄과 어떤 聯關性이 있는가를 고찰하고, 同 目錄의 內容 및 收錄圖書의 性格을 구명하고자 한다.

2. 四部誦惟目錄

2.1 題目풀이

이 四部誦惟目錄은 말 그대로 經, 史, 子, 集 4부의 저록 가운데 외울 부분만을 따로 정선한 목록이다. 淵泉의 동생 沆澐는 四部誦惟目錄 말미에 있는 四部誦惟詮에

2) 李尙籟, 洪氏讀書錄의 分類體系와 目錄記入法에 대한 研究, 서울, 1987, 延世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pp. 17-18

서 '誦惟'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海居(洪顯周 : 1793 - 1865)가 沆齋에게 묻기를, 어떻게 해야 책을 읽는다고 말할 수 있는냐고 물으니, 沆齋가 대답하기를, 誦讀하고(誦), 思惟(惟)해야 한다. 그 문장을 誦讀하는 것(誦)은 나의 지식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요, 그 의미를 思惟함(惟)은 내가 습득한 것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니, 誦讀하고 思惟하지 않으면 잃어 버리고, 思惟만 하고 誦讀하지 않으면 모두 없어진다고 하였다. ……”³⁾

즉, '誦惟'는 '誦讀하고 다시 그 의미를 思惟 즉 思索 또는 鑑賞한다'는 의미로서 讀書의 核心的인 方法인 것이다. 위의 글과 연관해서 '誦'과 '惟'의 辭典的인 意味를 살펴보고자 한다.

'誦'의 의미로는 誦讀, 讀誦, 暗誦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誦讀이라는 말이 그 의미상 가장 적절한 듯 하다. 읽고 외운다는 어순적인 의미상으로 보아서는 讀誦이 어울릴 듯하나 대개의 文集에서 誦讀이란 말로 통용하고 있다. “선비의 집에 經을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라는 옛 말을 상기해 볼 때 밤, 낮 없이 항상 외워 읽는 것(誦讀)은 옛날 선비들의 몸에 밴 관행인 것이다.

위 譯文에서 原文의 '惟'를 思惟라고 번역하였지만 '惟'의 의미에는 思惟, 思索, 鑑賞 등도 있으니, 문맥으로는 思索과 鑑賞이란 말이 더 적절한 면이 있기도 하다. 아마도, 일반적인 글을 읽고 난 후에는 思索이란 말이 적합하겠지만, 文學作品 등을 읽고 난 후에는 鑑賞이라는 말이 더욱 어울릴 것이다.

이 誦惟의 의미와 연관해서 沆齋가 동생 海居의 시집인 海居齋詩鈔의 序文에 쓴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세간에 글을 배우는 사람이 여러 차례 읽지 않으면(不累讀) 외울 수 없고(不能誦), 아주 잘 외우지 않으면(不熟誦),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없으며(不能得其味), 정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不精思) 깨우칠 수 없고(不能悟), 널리 보지 않으면(不博觀)

3) 洪吉周, 孰達念, 壬, 居業念, 四部誦惟說, 延世大學校 中央圖書館本.

海居子問於沆海子曰 何如 斯可謂之讀誦矣 沆海子曰 其誦惟乎 誦其文 所以富吾蓄也 惟其義 所以固吾得也 誦而不惟則流 惟而不誦則竭 ……

재목을 취할 것이 없다.”⁴⁾

沆瀣는 위의 글에서 약간 語彙 上의 차이는 있지만, 誦讀과 思惟와의 關係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 곧 累讀하고 熟誦하지 않으면 文章의 意味를 파악할 수 없으며, 熟誦한 후라도 그 의미를 정밀하게 思惟하지 않으면 재목거리를 찾을 수 없다는 말이다.

2. 2 編纂時期

이 四部誦惟目錄은 언제 편찬된 것인가? 同 目錄의 編纂時期를 알아내기 위해서 影印本 淵泉先生文集(許晟社)⁵⁾과 淵泉의 外孫인 韓章錫이 편찬한 鉛活字本 淵泉集의 年譜⁶⁾(서울:韓光洙邸刊)를 모두 조사하고, 그밖에 그의 仲弟인 沆瀣와 季弟인 海居의 著作도 모두 조사했지만, 同 目錄의 編纂時期를 규명할만한 資料는 그 어느 곳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다만 沆瀣가 30세 이후부터 50세 이전까지 저술한 글을 모아놓은 縹緗乙幘⁷⁾에 同 目錄의 말미에 포함된 沆瀣의 글 四部誦惟詮만이 수록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먼저 同 目錄이 수록되어 있는 孰遂念의 編纂時期를 먼저 규명한 후에, 이를 통하여 同 目錄의 編纂時期를 추정해야 할 것이다. 먼저 孰遂念의 찬술년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淵泉의 동생인 沆瀣가 저술한 孰遂念⁸⁾의 내용 중에는 정확한 편찬년도가 기재되

4) 洪顯周, 海居齋詩鈔, 序文, 洪吉周 書

世之學文者 不累讀 不能誦 不熟誦 不能得其味 不精思 不能悟 不博觀 無所於取材

5) 洪炳周, 淵泉全書, 影印本, 서울: 許晟社, 1984, 7冊

6) 洪炳周, 淵泉集, 京城: 韓光洙 邸, 1911, 鉛活字本.

현존 淵泉集 중에 淵泉의 年譜가 가장 자세히 수록되어 있음.

7) 洪吉周, 沆瀣丙函, 卷七, 不肖孤 洪祐健 謹識

先君子(洪吉周)가 30세 이전의 저작 10권을 峴首甲藁라 하고, 50세 이전의 저작 16권을 縹緗乙幘이라고 하니 모두 先君.父가 손수 校正하신 것이다. (先君子 集三十歲以前之作 爲十卷曰 峴首甲藁 五十以前之作 爲十六卷曰 縹緗乙幘 皆先君子 手自釐定也)

8) 제목 孰遂念의 의미는 同 書의 跋 孰遂念에 잘 나타나 있다. 그 의미는 '누가 능히 나의 사념을 이루어 주겠는가?' 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오던 思念을 이 책에 기술했는데, 그 생각을 누가 이루어주겠는가 라는 의미를 지닌 것이다. 그는 후세의 군자가 비록 이[孰遂念]를 비루하게 여기고 채택하지 않는다 해도, 好事有力者가 나타나 이 책을 按察하고 이를 實用에 초치하여 나의 寤寐不忘의 思念을 이루어 주지 않을 줄 알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다.

어 있지 않고 다만 執遂念의 第16觀 癸 執遂念⁹⁾에 同 著作의 編纂動機 및 그의 編纂時期를 추정할 만한 기사가 나온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금 나이가 40여세인데 落落히 이룬 것이 하나도 없고, 소소한 經濟를 담고 있는 이책(執遂念)에 이르러서는 재주가 모자라서 쓸모 없는 말에 그쳤을 뿐이나...”¹⁰⁾

“근년에 한가롭게 지냄에 뜻이 있어서 이책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루지 못했으나, 홀연히 어느날 붓을 잡고 종이에 임해서 胡寫亂草하니 열달 미만에 완성하였다. 대개 집필을 마친 날에 와서야 執遂念의 전체 국면이 다 완결된 것이다.”¹¹⁾

위 글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執遂念은 沆瀣가 40대 초반에 약 10여개월에 걸쳐서 완성한 저작이다. 그러나 저작의 내용으로 보아, 10여개월이란 단순히 편집기간에 불과한 것이고, 沆瀣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오고 모은 글들을 40여세 때에 편찬한 것이다. 이 사실은 다음 글에 잘 나타나 있다.

“후자가 말하기를 沆瀣가 어렸을 적에 입에서 나오는데로 마구 지껄여서 경솔하게 執遂念 석자를 말하였는데 실은 이 당시에 執遂念의 기초와 규모가 이미 개척되어 대략 정해진 것이다. 그 장성함에 이르러서는 뜻이 당세에 있어 오로지 執遂念에만 미칠 겨를이 없었으나, 이(執遂念)를 배우는 해박함과 이를 닦는 돈독함과 이를 축적하는 넉넉함과 이를 강구하는 정밀함은 스스로 執遂念의 배포에 보충되지 아니함이 없었다.”¹²⁾

9) 沆瀣는 執遂念의 凡例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세간에 編과 卷의 의미가 혼동되고, 卷 또한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卷’ 대신 ‘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전체 구성은 甲에서 癸로 이어지는 ‘十天干’의 순서로 구성했다. 每篇은 ‘念’이란 말을 사용했는데 그 이유는 執遂念의 내용이 實際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思念의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10) 洪吉周, 執遂念, 第十六觀, 癸, 執遂念, 2

今年四十有餘 落落無一成 至是書所載之小小經濟 亦坐才短 徒言而止

11) 洪吉周, 執遂念, 第十六觀, 癸, 執遂念, 3

近歲閑居 有意著此書而未就 忽一日 撥筆隨卷 胡寫亂草 不旬月而完 蓋完之日 而執遂念之全局 大成矣

12) 洪吉周, 執遂念, 第十六觀, 癸, 執遂念, 3

或曰 沆瀣子 兒時 信口妄語 率爾道執遂念三字 而即此時刻 執遂念基址規模 已開拓略定矣 及其壯歲 志在當世 固無暇及于執遂念 而若其學之博 修之之篤 蓄之之瞻 講之之精 靡有不自補乎執遂念之排鋪

즉, 執遂念은 沆瀣가 어렸을 때부터 이미 마음 속에 기획해 놓은 것을 토대로, 이와 연관된 자료를 계속 수집하고 축적하여, 40대 초반에 10여개월에 걸쳐 편찬하여 완성한 것이다. 그러면 이 40여세의 정확한 시기는 언제인가? 四部誦惟目錄이 수록된 執遂念에서는 찬술 동기와 더불어 40대 초반에 이 책을 저술했다는 말만 나오지 정확한 편찬년도는 나오지 않고 있다. 또한 沆瀣의 저작인 縹緗乙幟과 沆瀣가 죽은 후 그의 아들 祐健의 손에 의해서 편찬된 유고집인 沆瀣丙函을 찾아 보았지만 四部誦惟目錄과 執遂念의 정확한 편찬년도는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縹緗乙幟에 수록된 沆瀣의 題栢網詩卷에서 숙수님의 정확한 편찬년은 아니지만 그 대강의 시기를 짐작할만한 기사를 찾을 수 있었다. 沆瀣의 題栢網詩卷의 序 첫 머리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나온다.

“지난해 가을에 朴栢網(名 珪壽, 號 璣齋, 1809-1876)이 자신이 지은 尙古圖를 보내 와서 나[沆瀣]에게 序文을 지어줄 것을 요청했다. 금년 봄에 栢網이 또 七言長篇을 짓고 내가 저술한 [執遂念]의 책명을 따서 執遂念行이란 제목을 붙였다.”¹³⁾

위 글에서 朴栢網(珪壽의 字)이 七言長篇을 짓고 그 제목을 執遂念行이라고 명명한 것으로 보아, 이 七言長篇은 朴珪壽가 執遂念을 읽고 난 후에 저술한 것이다. 따라서 執遂念의 편찬년도는 朴珪壽의 七言長篇 보다는 그 편찬 시기가 앞선다. 그런데 朴珪壽가 尙古圖를 20세(1829)에 편찬했고¹⁴⁾, 七言長篇은 그 다음해(1830) 봄에 편찬한 것이므로¹⁵⁾, 執遂念의 편찬년도는 朴珪壽가 七言長篇을 짓기 전 해인 20세가 되는 1829년 또는 그보다 2, 3년 전에 편찬한 것으로 추정된다.

沆瀣가 1786년에 태어났는데, 1829년이면 沆瀣의 나이가 44세가 되므로, 沆瀣가 執遂念에서 말한 40여세와 그 시기 면에서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러면 執遂念 안에 수록된 四部誦惟目錄은 언제 편찬된 것인가?

13) 洪吉罔, 縹緗乙幟 卷8, 雜詩記 1. 題栢網詩卷.

去歲秋 朴栢網 寄示所作尙古圖 求余爲序 今春 栢網 又作七言長篇 取余所著書 名之日 執遂念行

14) 韓國學文獻研究所編, 朴珪壽全集 上,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8) 卷11 雜文, 尙古圖按說十則

珪壽[珪壽의 實弟]按 尙古圖者 先兄 弱冠時 所著書名也

15) 沆瀣는 縹緗乙幟의 題栢網詩卷에서 “栢網年幾何 二十稍有真”라고 하여 璣齋集에서 珪壽의 동생 珪壽가 쓴 내용과 1년의 차이는 있으나, 필자는 璣齋集에 수록된 연도를 따랐다.

同 目錄의 편찬시기는 執遂念의 편찬 시기와 완전히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同 目錄의 편찬시기를 규명해 줄만한 자료가 나오지 않는 한은 執遂念의 편찬시기와 동일한 1829년으로 잡아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四部誦惟目錄이 편찬될 당시에 淵泉 兄弟들의 나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長男인 淵泉은 1774년, 仲弟 沆瀄는 1786년, 季弟 海居는 1793년에 각각 태어났다. 淵泉과 沆瀄는 12세, 沆瀄와 海居는 7세의 터울이 있으며, 淵泉과 海居는 19세나 차이가 난다.

四部誦惟目錄의 編纂時期를 執遂念이 編纂된 時期인 1829년으로 예측할 경우에 淵泉의 나이는 沆瀄 보다 12세 위이므로 56세가 되며, 海居는 沆瀄 보다 나이가 7세가 어리므로, 同 目錄의 編纂時 海居의 나이는 37세로 잡아 볼 수 있다. 따라서 同 目錄은 淵泉이 50대 후반에 30대 후반인 季弟 海居를 위해서 편찬한 것이다. 또한, 海居가 沆瀄에게 讀書하는 方法을 질문하면서 “공부할 뜻은 있으나 시기가 너무 늦어서(晚) 능히 두루 다할 수 없으니”¹⁶⁾ 라고 말한 내용 또한, 執遂念 편찬 당시 海居의 나이가 30대 후반인 점을 감안해 본다면, 同 目錄의 編纂時期에 관한 위의 해석을 더욱 뒷받침해 주고 있다 하겠다.

2.3 編纂動機

四部誦惟目錄의 編纂動機는 沆瀄가 쓴 四部誦惟詮에 자세히 나오고 있다. 그 글의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海居가 말하기를 내가 [讀書]에 뜻이 있으나, 공부할 시기가 너무 늦어서(晚) 능히 두루 다할 수 없으니, 그 간략하면서도 쉽고, 오래도록 할만한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沆瀄가 말하기를 훌륭하도다. 그대의 질문이여! 우주 사이에 책 한질이 있는데, 간략하면서도 포괄 범위가 넓으니 그 이름은 四部誦惟이다. 그 글에는 方策이 산재해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대개 그 사람을 기다린다. 자네가 그것을 해 보겠는가? … 海居가 그 말씀을 받고서 淵泉선생을 방문하니, [淵泉선생이] 뽑아서 약간 권을

16) 洪吉周, 執遂念

海居子曰 吾有志矣 晚不能博聞

적어 주시니 그 분량이 몇 권(약간권)이 되었다.”¹⁷⁾

즉, 이 四部誦惟目錄은 淵泉이 그의 季弟 海居가 讀書에 뜻은 있으나 讀書를 새로 시작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보아 너무 늦어서, 四部の 書籍을 두루 다 읽을 수 없다는 사정을 듣고, 經, 史, 子, 集 全 주제분야의 서적 중에 이들 각각의 주제 분야를 대표할만한 가장 중요한 서적을 선정하고, 이들 선정된 서적 가운데 誦讀할 부분 즉, 가장 核心的인 부분만을 정선하여 편찬한 것이다.

그러면 同 目錄의 편찬계기를 마련해준 淵泉의 막내동생 海居의 讀書生活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沈澐가 동생 海居의 시집인 海居齋詩鈔를 위해 쓴 序文에 그 개략적인 모습이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다.

“내동생(顯周, 海居)은 어렸을때 아주 讀書를 좋아하지 않고, 떠들며 뛰어다녀서 웅장한 기운이 천하도 좁게 여겼다. 비록 課讀에 임박하여 [그나마]조금 古經史를 읽었으나 뜻은 일찌기 行墨間에 얽매이지 않았다. ... 돌아보건데 나이가 더욱 장성해지고 기운이 더욱 호건해짐에 머리를 굽혀서 더욱 연구에 힘쓰지 않고, 간간히 古人の 書冊을 살펴 봄에 몇 장도 안넘겨서 갑자기 책을 덮고 일어났다. ... 책을 읽고 오묘한 뜻을 해석하는 것은 마치 庖丁解牛하듯 뼈와 살을 아주 깨끗하게 발라내는 것 같았다. 평소 책상에 한권의 책도 없었으나, 고서사의 격언 및 尾語를 ... 세간의 학자가 종신토록 열심히 궁구해야만 겨우 이해할만한 것을 모두 좌우에 두고 취하는 것 같았다. ... 우리 동생의 아들 詰(洪祐詰)이는 재주가 비록 내 동생만큼은 미치지 못하나 그 豪邁하여 구속되지 않음은 [아버지를] 빼달았다. 우리 동생도 점점 늙어가는데, 나는 원컨데 그가 머리를 숙이고 誦讀을 일삼기를 마치 晝堂에서 課學하는 童子같이 하여 祐詰이가 본받을 만한 것을 보여 주기 바린다...”¹⁸⁾

17) 洪吉周, 孰達念, 四部誦惟詮

海居子曰 吾有志矣 晚不能博爾 願受其約而易久 沈澐子曰 善 女之問也 宇宙之間 有書一帙 約而括乎博 其名曰 四部誦惟 其書散在方策 未嘗著也 蓋嘆其人焉爾 女欲之乎 海居子受其說 詣淵泉先生 而過之爲若干卷

18) 洪顯周, 海居齋詩鈔, 序文 洪吉周書

吾弟幼時 不甚嗜讀書 喧呼奮躍 雄氣狹寰宙 雖迫於課讀 粗涉古經史 而意未嘗拘拘行墨間也 ... 顯尚益壯 氣益豪 益不以俯首鑽究爲務 間披閱古人書 未數頁 輒廢卷起 ... 讀書解奧義 如庖丁操刀 所過無肯綮 平居或案無一卷 然古書史 格言尾語 ... 世之學者 終其身屹屹 不暇他事爲而屬能摺摺者 皆若左右取焉 ... 吾弟之子 詰 才不逮吾弟 而其豪邁不羈束 則肖焉 吾弟雖漸老 吾願其抑首事誦讀 若庖塾課學童子 以示詰可效也

沆瀣가 이 글을 쓸 당시에 海居의 나이가 40세였으므로¹⁹⁾, 四部誦惟目錄이 編纂된 시기 보다 3년 후에 쓴 글이지만, 위글에서는 海居의 독서생활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위글의 내용으로 보아 막내인 海居는 자신의 두형들처럼 어려서부터 讀書에 힘을 기울이지는 않았으나, 호탕한 성격과 대단히 천재적인 머리를 지녔던 것으로 여겨진다. 沆瀣가, 不惑의 나이가 되어 처음으로 上梓한 海居의 詩集 序文에서, “동생의 詩가 너무 빼어나서 자신은 그의 詩에 대해 論評할 것이 없다”²⁰⁾고 하여 시에 대한 논평은 하지도 않고, 아들 祐喆이를 보아서라도 誦讀을 더욱 열심히 해서 자식이 본받도록 해주기를 당부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沆瀣는 동생인 海居가 어려서부터 자신의 머리만 빼어났지 讀書生活에 충실하지 않았음을 염려하였으며, 또 그(海居)를 닮아 자신의 조카(祐喆)까지 讀書를 등한시할까봐 걱정한 것이며 또한 이 같은 걱정은 아마 큰형인 淵泉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海居의 讀書生活로 보아서, 이 四部誦惟目錄은, 뒤늦게 철들어서 보다 체계적인 讀書를 시작하려는 막내동생을 위해서 만형인 淵泉이 편찬해준 것이다.

淵泉이 洪氏讀書錄을 편찬하게 된 동기가 淵泉 자신이 젊은 시절에 너무 분별없이 마구잡이로 책을 읽은 일을 뒤늦게 후회하고, 그의 仲弟 沆瀣의 학문방향을 잡아주기 위한 것인데 비해,²¹⁾ 이 四部誦惟目錄은 淵泉이, 자신의 머리만을 믿고 어려서부터 책읽기를 등한시하다가 讀書시기를 놓친 막내 海居를 위해 편찬한 것이다. 결국 淵泉이 仲弟 沆瀣를 위해서 洪氏讀書錄을 편찬했다고 한다면, 이 四部誦惟目錄은 淵泉이 季弟 海居를 위해서 編纂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洪氏讀書錄은 淵泉이, 仲弟 沆瀣가 分別없이 책을 너무 많이 읽는 것을 염려하여 편찬한 것인데 비해 이 四部誦惟目錄은 淵泉이, 讀書를 너무 등한시하다가 뒤늦게 철들은 海居를 위해서 편찬한 것이다. 兩目錄 모두 淵泉이 동생을 위해서 찬술한 것이나, 두 동생의 상반된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이다.

19) 洪顯周, 海居齋詩鈔, 序文 洪輿周 書, 今年登四十, 始冀其生平所作.

洪輿周와 洪吉周의 序文이 수록되어 있는데 모두 壬辰年(1832) 봄에 쓴 것이다.

20) 洪顯周, 海居齋詩鈔, 序文, 洪吉周書.

吾弟選所著書十篇 付之梓 徵序於余 吾弟之詩 不假余論品 姑書此以屬之

21) 李尙籟, 洪氏讀書錄의 分類體系와 目錄記入法에 대한 研究, p. 53.

그러나 同 目錄의 編纂動機에는 다소 疑問이 가는 부분이 있다. 四部誦惟詮의 내용 중에 "四部誦惟가 있으니 대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²²⁾라는 말을 하여 마치 四部誦惟가 그 이전에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즉, 淵泉이 季弟 海居의 요청을 받은 즉시 동생을 위해서 새로 아이디어를 내서 同 目錄을 편찬한 것인가, 아니면 淵泉이 자신 또는 자기 동년배 사람의 송독생활을 진작시켜주기 위해 이미 만들어 놓은 誦讀目錄의 내용 가운데 일부를 선정해서 동생에게 만들어 준 것인가 하는 의문인 것이다.

同 目錄이 세간에 나오게 된 계기가 海居의 讀書生活을 진작시켜 주기 위한 것임은 이미 앞에서 구명하였지만, 그 이면에 감추어진 同 目錄의 찬술성격에 대해서도 구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먼저 평소 淵泉의 讀書生活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淵泉)이 매일 책을 읽을 때는 엄격한 계획을 세워서 몇 시에는 어떤 책을 읽고, 몇 시에는 어떤 글을 보는가에서 세수하고, 밥먹고, 쉬는 시간에 이르기까지 모두 지켰다."²³⁾

"선생이 어렸을 때에 讀書를 함에 이미 날마다 日課를 정하고 課外의 冊 여러 종을 나누어서 한가한 때에 맞추었다. 어떤 책은 곧 세수한 후 虎皮를 깔고 巾을 쓰고 앉아서 보고, ... 모두 하루에 1, 2장에 불과 하지만 달이 지나고 해를 넘기니 이미 4, 5질을 다 읽으면서도 原課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아 약관도 안되어서 이미 두루 고금[의 서적]을 독파했다. 승지가신이 되었을 때 漢書를 읽음에 비록 중일토록 공직에 있다가 ... 돌아와 밤이 깊은 후라도 반드시 등불 아래서 책을 쥐고 3, 4행이라도 읽은 연후야야 취침하면서 말하기를 '日課는 한번이라도 빠뜨려서는 안된다'고 다짐하곤 하였다. ..." ²⁴⁾

22) 洪吉周, 敦逸念, 四部誦惟詮

其名曰 四部誦惟 其書散在方策 未嘗書也 蓋喚其人焉爾 女欲之乎

23) 洪顯周, 淵泉先生家狀(淵泉先生文集, 奎藏閣本, 卷44), 張 4a

公每日看讀 必嚴立課程 如某時讀某書 某時看某文 至如盥巾食息之頃 皆有所習

24) 洪吉周, 續讀乙機, 卷 14, 睡餘演筆, 上

先生(淵泉)少時讀書 既有逐日定課 而用課外書數種 分屬於閑時 如某書 則讀於盥後 施虎坐巾時觀 ... 皆日不過一二頁 而積月踰歲 已了却四五帙 并不與原課相奪 以故 未弱冠 已博極古今 爲承旨關臣時 讀漢書 雖終日 在公 ... 罷還 夜深之後 必取書於燈下 讀三四行然後 寢曰 課不可厭...

즉, 淵泉은 讀書을 함에 엄격한 計劃을 세워서 주도면밀한 독서생활을 하였으며, 어려서부터 承旨閣臣이 될 때까지도 淵泉은 讀書의 日課를 정해서 본래의 讀書計劃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그 이외의 책도 추가하여 이를 병행하는 등 아주 엄격한 讀書生活을 한 것이다.

다음 글은 淵泉의 誦讀生活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淵泉先生이 어렸을 때에 일찌기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아주 피곤할 때에 눈을 감고 책을 誦讀하다가 문득 잠이 들어도 입에서는 채 誦讀을 그치지 않았으며, 誦讀함에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다. 그 자리에 張名浩란 사람이 있었는데 … 그가 크게 놀라서 어떻게 이러한 이치가 있을 수 있느냐고 물으니 선생이 한껏 미소를 지으셨다.”²⁵⁾

즉, 淵泉은 주변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로 어려서부터 冊을 읽고 외우는 생활, 즉 誦讀生活이 몸에 완전히 베어 있었던 것이다.

위 글에서 “눈을 감고 誦讀하다가 문득 잠이 들어도 입에서는 채 誦讀을 그치지 않았으며” 라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淵泉은 이미 誦讀生活이 몸에 별만큼 자신의 송독생활에 충실하였으며, 평소 그의 계획적인 독서생활습관을 볼때 淵泉이 무턱대고 송독생활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송독생활이 몸에 별 정도로 자신이 계속적으로 행해온 誦讀目錄을 지녔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淵泉의 독서 및 송독생활로 미루어 보아 四部誦惟詮에서 沆瀣가 海居에게 “四部誦惟가 있으니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한 말은, 이미 淵泉이 일상적으로 행한 誦讀目錄이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해 주고 있으며 同 詮의 맨 뒷부분에 “淵泉先生이 뽑아서 적어주시니 그 분량이 몇권(若干卷)되었다” 라고 말함으로써 이미 편찬된 四部誦惟 중에서 海居를 위해 몇몇 저록을 선정해 주었다는 위양스를 준 것이다.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서 四部誦惟目錄은 淵泉이 단순히 海居의 부탁을 들은 직

25) 洪吉周, 續書乙繼, 卷 14, 睡餘演筆上.

淵泉先生 少時嘗自言 於困憊時 闔眼誦書 便則入睡 而口亦不絕於誦 誦亦不錯一字 座有張生名浩者 大駭 以爲寧有是理 先生亦微笑.

후에 발상해서 편찬했다기 보다는, 淵泉 자신이 그 당시까지 계속적으로 행해온 誦讀目錄 가운데 일부를 재차 선정하여 편찬한 것이다.

또한 沆瀣가 四部誦惟目錄의 凡例格으로 쓴 글에 나타난 同目錄의 대상범위는 이 사실을 더욱 뒷받침해 준다.

- “一. 사람은 하루도 배우지 않으면 안되니 비록 나이가 늙고 혈기가 이미 쇠약해져도 經書를 익혀 이치를 궁구하고 함양하여 지키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二. 노인은 총명과 정력 면에서 많이 기억할 수 없으므로, 古書는 선별해서 외워야 해가 없다. 四部誦惟가 있으니, 지금 그 目錄을 여기에 기록한다.”²⁶⁾

즉, 四部誦惟目錄은, 사람이 늙고 기력이 쇠약해진다해도 經書를 익히고, 理致를 궁구하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데, 老人은 능력상 한계가 있으므로, 老人들을 위해서 經, 史, 子, 集 전 주제분야의 고전적인 서적 가운데, 반드시 誦讀하고 思索해야 할 부분을 선정해 놓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沆瀣가 四部誦惟目錄의 말미에 四部誦惟詮을 수록하여 淵泉이 海居를 위해서 同目錄을 편찬해 주었다는 찬술 동기를 말해놓고, 同目錄의 맨 앞에 범례격으로 쓴 글에서 四部誦惟詮의 내용을 무색하게 하는 ‘老人’이란 말을 굳이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비록 淵泉이 海居를 위해서 同目錄을 만들어준 것이기는 하지만, 그 이면에 내재된 동 목록의 찬술 목적은 기본적으로 淵泉 자신 및 자신과 나이가 비슷한 노인들의 송독생활을 위해서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沆瀣가 형의 글을 자신의 저작에 수록한 것인 만큼 沆瀣가 兄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해서 동 목록에 범례격으로 썼을 것이다.

四部誦惟目錄의 편찬 당시에 淵泉의 나이가 56세인 점을 감안한다면, 당시의 관념으로 보아 淵泉 또는 그 동년배에게 ‘老人’이란 말을 붙여도 그다지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同目錄의 편찬 계기를 마련해준 海居의 나이는 그 당시에 기껏해야 37세에 불과했기 때문에 老人이란 명칭을 붙여주기에는 다소 무리였던 것이다. 淵

26) 洪吉周, 孰違念, 王, 居案念

一.人不可一日不學 雖年紀已老 血氣已衰 溫經窮理 涵養守持之功 不可懈也 居官居家 卽事卽物 無非學也
 二.老人 聰明精力 不能多記 古書則選而誦之無害 有四部誦惟 今記目錄于左

泉이 海居에게 노인이 될 때까지 열심히 誦讀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이 해석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다.

결국 뒤늦게 마음을 잡은 海居가 沆瀣에게 讀書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을 하고, 그의 구체적인 방법을 묻자, 沆瀣는 자신이 존경하는 큰형 淵泉이 이미 四部誦惟를 갖고 있으며, 그 四部誦惟가 막내인 海居의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될 줄을 알고 큰형을 찾아가 부탁해 보라고 말한 것이다. 海居는 沆瀣의 말을 듣고 淵泉에게 찾아가서 沆瀣와 나눈 이야기를 하니가 淵泉이 자신의 誦讀目錄 중에서 海居를 위해 著錄 약간 권을 선정하여 同 目錄을 편찬해 준 것이다. 따라서 同 目錄은 淵泉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던 四部誦惟目錄의 縮約本일 가능성이 짙다.

이상에서 살펴본 四部誦惟目錄의 編纂 動機를 한마디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同 目錄은, 淵泉이 讀書를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지만, 뒤늦게라도 讀書를 시작하려는 季弟 海居를 위해 편찬한 것이나, 그 편찬 동기 이면에는 淵泉 자신 및 자신과 같이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쇠약해진 사람들의 독서생활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미 편찬해 놓은 것 가운데 일부를 선정해서 同 目錄을 편찬한 것이다. 따라서 同 目錄은 淵泉이 이미 만들어 놓은 四部誦惟目錄의 縮約本일 가능성이 높다.

이 四部誦惟目錄은 淵泉先生文集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淵泉先生年譜에도 나타나지 않으며, 淵泉의 自序도 없이 단순히 淵泉의 동생 沆瀣의 저작 執遂念에 삽입된 것으로 보아, 同 目錄의 내용과 분량상 淵泉先生文集에 수록할 만한 것이 못되므로, 沆瀣가 자신의 저작에 수록한 것이라고 봄이 옳다고 본다.

2. 4 內容分析

四部誦惟目錄의 內容을 原文 그대로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四部誦惟目錄

經部

易 乾, 繫辭上傳 第一章, 第四章, 第五章, 第八章, 第十章, 第十一章, 第十

- 二章, 下傳 第二章, 第五章.
- 書** 堯典(虞), 舜典, 大禹謨, 皋陶謨, 益稷, 禹貢(夏), 牧誓(周), 洪範, 無逸, 顧命.
- 詩** 周南全(國風), 召南全, 衛碩人, 鄭女曰鷄鳴, 秦小戎, 蒹葭, 豳七月, 東山, 天保(小雅), 白駒, 斯干, 大東, 文王(大雅), 大明, 生民, 烝民, 韓奕, 閟宮(魯頌).
- 禮記** 三年問.
- 周禮** 考工記總敘
- 論語** 鄉黨全, 浴沂章(先進), 微子全
- 大學** 全
- 中庸** 全
- 孟子** 首章(梁惠王上), 沼上章, 移民移粟章, 穀觶章, 好樂章(梁惠王下), 好勇章, 雪宮章, 明堂章, 管晏章(公孫丑上), 浩然章, 景丑章(公孫丑下), 三宿出晝章, 喪禮章(滕文公上), 許行章, 陳代章(滕文公下), 景春章, 好辯章, 伊尹章(萬章上), 集大成章(萬章下), 牛山章(告子上), 設大人章(盡心下), 卒章.
- 孝經** 經 1章

史部

- 左氏春秋傳** 鄭伯克段于鄆(隱公), 臧哀伯諫郟鼎(桓公), 長勺之戰(莊公), 晉太子申生伐東山臯落氏(閔公), 召陵之盟(僖公), 晉文公一戰而霸, 王孫滿却楚子問鼎(宣公), 鞞之戰(成公), 吳子使札來聘(襄公), 右尹子革對楚子(昭公)
- 國語** 公父文伯退朝章(魯)
- 戰國策** 莫敖子華論憂社稷(楚), 莊辛論幸臣, 范臺之觴(魏), 唐雎見秦王, 樂毅報燕惠王(燕), 齊宣王見顏闞(齊)
- 史記** 伯夷傳, 貨殖傳
- 漢書** 中山靖王聞樂對

後漢書 延篤與李文德書

子部

莊子 逍遙遊全, 秋水(節錄)

荀子 勸學(節錄), 哀公(節錄)

周子 太極圖說

張子 西銘

程叔子 四勿箴, 明道先生墓表

朱子 大學序, 中庸序, 小學題辭, 敬齋箴, 與陳侍郎書, 與魏應仲書

集部

楚辭 九歌(屈原), 卜居, 漁父

文選 登徒子好色賦(宋玉), 上秦王諫逐客書(李斯), 過秦論(賈誼), 長門賦(司馬相如), 獄中上書(鄒陽), 報任少卿書(司馬遷), 答蘇武書(李陵), 報孫會宗書(楊暉), 解嘲(楊雄), 出師表(諸葛亮), 洛神賦(曹植), 陳情表(李密), 歸去來辭(陶潛), 廣絕交論(劉峻), 恨賦(江淹), 別賦詣建平王上書

文苑英華 哀江南賦(庾信), 滕王閣詩序(王勃)

唐宋八大家 佛骨表(韓愈), 與孟尚書書, 送鄭尚書序, 送孟東野序, 送董邵南序, 送區册序, 送李愿歸盤谷序, 藍田縣丞廳壁記, 原道, 諱辯, 進學解, 獲麟解, 雜說, 張中丞傳後敘, 送窮文, 南海神廟碑, 平淮西碑, 展中少監馬君墓誌, 鰐魚文, 祭河南張員外文, 與崔饒州論石鍾乳書(柳宗元), 始得西山宴游記, 愚溪對, 上范司諫書(歐陽脩), 朋黨論, 有美堂記, 醉翁亭記, 祭石曼卿文, 秋聲賦, 辨奸論(蘇洵), 木假山記, 名二子說, 范增論(蘇軾), 田表聖奏議序, 靈壁張氏園亭記, 李君山房記, 放鶴亭記, 石鐘山記, 前赤壁賦, 後赤壁賦, 黃樓賦(蘇轍), 讀孟嘗君傳(王安石), 道山亭記(曾鞏).

四部誦惟目錄은 經部, 史部, 子部, 集部の 4部로 구성되었으며, 총 26종의 저록이 수록되어 있다. 경부가 10종, 사부가 6종, 자부가 6종, 집부가 4종이다. 각 部 內에서 門(類)과 目(屬)의 계층 구분 없이 곧바로 書名을 기입한 후에 그 저록의 내용 중에서 선정한 篇 및 章 또는 主要 文章의 머리 부분을 기입하고 있다.

同 目錄은 淵泉이 56세 때 편찬한 것이다. 淵泉이 동생 沆菴의 讀書方向을 잡아 주기 위해서 洪氏讀書錄을 편찬할 당시 淵泉의 나이가 37세였으므로, 同 目錄은 同 讀書錄 보다 19년 후에 편찬된 것이다. 目錄의 성격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兩 目錄 모두 淵泉이 저술한 것이며, 공통적으로 四部分類法을 채용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淵泉이 同 目錄을 편찬할 당시에 同 讀書錄의 內容을 저본으로 참조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洪氏讀書錄의 類目名과 四部誦惟目錄의 書名을 서로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洪氏讀書錄		四部誦惟目錄	
經部	易	經部	易
	書		書
	詩		詩
	禮		禮記
	春秋		周禮
	四書		論語
	[論語]		大學
	[大學]		中庸
	[中庸]		孟子
	[孟子]		孝經
	[論孟]	史部	左氏春秋傳
	孝經		國語
	小學		戰國策
	樂		史記
史部	史		漢書
	野史		後漢書
	神史	子部	莊子
	志		荀子
子部	儒家		周子
	農家		張子

醫家		程叔子
兵家		朱子
老家	集部	楚辭
法家		文選
雜家		文苑英華
數家		唐宋八大家
天文家		
數術家		
藝術家		
說家		
小說家		
釋家		
集部	總集	
	別集	

위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洪氏讀書錄과 四部誦惟目錄은 각 部 내에서 門(類)과 目(屬)의 계층 구분 없이 곧바로 書名을 기입한 점을 제외하고는 經, 史, 子, 集의 四部分類法을 채용하고 있는 점, 各 部내에서의 著錄排列이 동일한 점 등 전체적인 면에서 서로 類似한 構造를 지니고 있다. 淵泉이 四部誦惟目錄을 편찬했을 당시에 洪氏讀書錄을 저본으로 참조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同 目錄의 내용을 각 部 別로 同 讀書錄과 연계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2.4.1 經部

經部에는 易, 書, 詩, 禮記, 周禮, 論語, 大學, 中庸, 孟子, 孝經의 10종의 저록이 수록되어 있다. 經部에 있어서 저록의 배열순차는 비록 類目名의 표시는 없지만 洪氏讀書錄에 나타난 類目の 순차와 동일하다. 四書를 論語, 大學, 中庸, 孟子的 순서로 배열한 것 역시 洪氏讀書錄에서의 四書門의 배열과 일치하였다. 양 목록의 차이점은 左氏春秋傳을 同 讀書錄의 경우에서와 같이 經部 春秋門에 수록하지 아니하고 史部에 돌려서 수록하고 있는 점이다.

이 四部誦惟目錄에는 九經이 모두 선정되어 수록되어 있는데, 沈澐는 그 이유를 類纂乙機에서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 있다.

“九經은 … 모두 聖人和 哲人の 말씀이니, 어찌 감히 取捨選擇을 하겠는가? 이미 그 전체를 융합하고, 그 정수를 뽑아내고, 이를 더욱 가미하여 학문이 실용에 미치니, 오직 全文을 조각낼 수 없다.”²⁷⁾

즉, 沆瀣는, 九經은 聖人和 哲人の 말씀이므로 취사선택을 할 수 없다고 하여, 同 目錄에서 九經을 모두 수록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 이밖에 同 目錄에는 小學門과 樂門에 들어갈 저작들이 선정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그 類目的 설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4.2 史部

史部에는 左氏春秋傳, 國語, 戰國策, 史記, 漢書, 後漢書의 6종의 著錄이 수록되어 있는데, 洪氏讀書錄에서의 類目排列 順次와는 달리, 단순히 著者の 先後學 順으로만 배열하였다. 同 讀書錄의 史部 別史門에 수록한 國語, 戰國策과 史部 史門의 紀傳目에 수록한 史記, 漢書, 後漢書가 선정되었는데, 비록 類目間的 順次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國語와 戰國策이 同 讀書錄의 史部 別史門에 나란히 배열되어 있고, 史記, 漢書, 後漢書가 同 讀書錄의 史部 紀傳目에 나란히 배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史部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洪氏讀書錄의 經部 春秋門에 수록한 左氏春秋傳을 經部에 포함시키지 않고, 史部の 제일 앞에 놓은 점이다. 沆瀣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春秋는 큰 글(鉅章)이 없어서 經部에 열거하지 않고, 史部の 제일앞에 놓았으니, 제외시킨 것이 아니다. 三國(夏,殷,周)이후 세상이 더욱 쇠퇴해지고, 문장이 더욱 약해져서 족히 [經部에] 천거할 수가 없었다.”²⁸⁾

즉, 夏, 殷, 周 三國 이후 세상이 쇠퇴해지고 문장이 약해져서 春秋를 經部에 분

27) 洪吉周, 孰達念…

九經 … 是皆聖哲之言 庸敢選乎 既融厥全 攝其粹而益味之 學豈庸實 唯全文不可斷.

28) 洪吉周, 孰達念

春秋無鉅章 經不傳傳而死于史 非謬也 三國以降 世彌衰而文案弱 不足薦也

류할 수가 없었다고 하여, 同 目錄에서 春秋를 史部에 분류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위글에서 沈澁가 말한바 문장이 약해졌다는 春秋는 공자가 편수한 春秋 즉, 春秋의 經文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고, 左氏傳, 公羊傳, 穀梁傳 등과 같이 그의 諸 傳이나 그후의 諸 註疏를 가르키는 것이다. 다만 淵泉이 洪氏讀書錄을 편찬할 당시에 左氏春秋傳을 經部에 수록한 이유는 春秋와 관련된 도서를 한 곳에 모아주려는 分類的인 思考에서 나온 所以일 것이다.

그런데 淵泉이 어떤 연유로 公羊과 穀梁의 春秋를 제외하고 유독 左氏의 것만을 수록했을까?

淵泉이 44세에 저술한 春秋備考의 序文에 나타난 글은 그 이유를 밝혀준다.

“그러나 左氏가 經을 解釋한 것은 訥告 文體를 많이 따랐고, 公羊, 穀梁의 설은 왕 王 日月, 名字로서 판단을 하고, 그 설명을 함에 君臣, 父子의 大義에 근본하지 않고 간혹 功利, 權謀, 不經한 논의를 섞었다. …”²⁹⁾

즉, 이글에서 淵泉은 公羊, 穀梁의 春秋가 君臣 父子의 大義에 근본하지 않고 功利, 權謀, 不敬한 논의를 했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또한 洪氏讀書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春秋傳이 天下에 유행하고 있는 것은 三家의 것이 있다. 左氏는 사건을 서술하고, 公羊과 穀梁은 뜻을 해석하고 있다. 그 사건을 서술하지 않고 그 뜻에 능통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左氏春秋傳이 홀로 크게 유행하고 있는 것이다.”

즉, 春秋 三家 중에 春秋左氏傳이 역사적 사건을 서술한 후에 그 사건의 의미를 해석해서 세간에 가장 널리 유행하므로, 淵泉이 생각하기에 가장 善本으로 여기는 左氏의 것만을 수록한 것이다.

29) 洪昉周, 春秋備考, 序文.

然左氏釋經 多從杜告之文 公穀之說 往往以日月名字爲斷 且其爲說 多不本於君臣父子之大義 而或雜以功利 權謀不經之論

30) 洪昉周, 洪氏讀書錄, 經部, 春秋門, 春秋左氏傳

春秋之傳 行於天下者 三家 左氏以敘事 公穀以解義 不得其事而能通其義者 未之有也 是以 左氏獨大行

四部誦惟目錄의 史部에서 淵泉은 左氏春秋傳 바로 다음에 國語를 수록하고 있다. 淵泉은 일찍이 洪氏讀書錄의 國語 解題에서,

“그 책(國語)은 春秋傳과 서로 표리의 관계에 있다. 그런 까닭으로 또한 春秋外傳이라고 일컫는다.”³¹⁾

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로 미루어 보아, 國語는 春秋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서 세간에서 이를 春秋外傳이라고도 말하기 때문에 左氏春秋傳과 한 짝을 맞춘 것이다.

沆灋는 四部誦惟目錄의 史部에 수록한 6종의 史書에 대해 자신의 短評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左氏春秋傳은 簡潔하면서도 文彩가 나고, 國語는 美麗하면서도 법칙이 있고, 戰國策은 放肆하면서도 嚴肅하고, 太史公의 史記는 웅장하면서도 포괄적이고, 漢書는 꼼꼼하긴 하면서도 塞淵하고, 後漢書는 直說的이면서도 通明한 바 있다.”³²⁾

즉, 史部에 수록된 6종의 저록에 대한 자신의 소감을 간단 명료하게 評論하고 있다.

2.4.3 子部

子部에서는 莊子, 荀子, 周子, 張子, 程叔子, 朱子の 6개의 저록을 시대순으로 배열하였다. 이는 著者名을 記入語(標目)로 잡은 例이다. 洪氏讀書錄에는 모두 子部 儒家門에 수록된 것이지만, 莊子 하나만은 子部 老家門에 들어 있던 것이다.

莊子와 荀子 외에 周子, 張子, 程叔子, 朱子를 수록했는데 이는 熊賜履의 學統이란 책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淵泉은 鶴岡散筆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31) 洪爽周, 洪氏讀書錄, 史部, 史門, 別史目, 國語
其書(國語)與春秋傳 相表裏 故亦稱春秋外傳

32) 洪吉周, 執遂念

左氏潔而文 國語麗而則 戰策肆而肅 太史雄而括 漢書糾而塞 後漢直而通

“熊賜履가 學統을 지어 周子, 程子, 張子, 朱子를 높여서 顏淵, 曾子, 思有, 孟子에 연
지시키고, [그뒤를] 薛敬軒, 胡敬齋, 羅整庵, 高攀龍의 4명이 계승했다고 하고, 말하
기를 薛, 胡, 羅, 高의 학문은 곧 周子, 程子, 張子, 朱子の 학문이고 周子, 程子, 張
子, 朱子の 학문은 곧 顏淵, 曾子, 思有, 孟子の 학문이다.”³³⁾

곧 淵泉이 자부에서 周子, 程子, 張子, 朱子를 수록한 것은 결국 孔子를 學統으로
하는 정통 유가의 대표적인 계승자의 저작을 선정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만한 것은 바로 莊子の 문제이다. 자부의 수많은 서적 가운
데 유가의 학통을 이을 대표적인 저작만을 선정한 淵泉이, 유독, 노자도 아닌 莊子
를 수록한 것은 대단히 파격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同 讀書錄의 子部 老家門에 수록한 저록 莊子の 解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莊子 十卷, 莊周가 지은 것이다. 老子는 비록 虛無를 숭상하였지만 처음부터 큰소
리로 先王의 道를 꾸짖지 않았는데, 莊子에 이르른 후에는 미쳐 날뛰고 제멋대로 하
는 폐단이 극에 달했다. 그러나 그說은 自然을 으뜸으로 삼으니 또한 老子的 뜻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 문장의 雄辯은 先秦이래 없는 것이다.”³⁴⁾

즉, 淵泉은 같은 老家라도 老子和 莊子에 대한 견해상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老子的 시절 보다도 莊子가 나온 이후에 선왕의 도를 꾸짖고, 미쳐 날뛰고 제멋
대로하는 폐단이 극에 달했다고 혹평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淵泉은 莊子の 뛰어난 文章의 雄辯性에 대해서는 극찬을 하고 있다.

淵泉은 노경에 저술한 鶴岡散筆에서 莊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莊周는 聖인도 아니고 法度도 없다. 그러나 그 이치를 설명함에는 지극히 정밀함

33) 洪輿周, 學岡散筆, 卷 3, p. 106, d

熊賜履作學統 尊周程張周 以接顏曾思孟 繼之以薛胡羅高四子 曰 薛胡羅高之學 卽周程張朱之學 周程張朱之學 卽顏曾思孟之學也 其推重如此

34) 洪輿周, 洪氏讀書錄, 子部, 老家類, 莊子

莊子十卷 莊周之所作也 老子雖崇尚虛無 未始大言謾先王之道 至莊子而後 猖狂恣肆之弊 極矣 然其說以自然爲宗 又與老氏之旨微異 其文章雄辯 則先王以降 所未有也

이 있다. 齊物論에서 ‘남이 아니면 나도 아니고, 내가 아니면 취할 것이 없다’ 라고 말했는데 이는 곧 儒家에서 이른바 ‘리가 있는 뒤라야 氣가 있고 氣가 아니면 리가 붙을 것이 없다’ 라고 말한 것과 같은 것이다. … 天人理氣의 妙와 主靜養心의 功은 우리 儒家의 정밀한 뜻이 있는 것인데, [장자의] 그말이 [유가와] 딱 맞음이 이갈 으니 가히 所見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道를 보는데 貴한 것은 이것을 實用에 措置하고자 하는 것이다. 是曰是요 非曰非요 有曰有요 無曰無라하여 명확히 쉽게 아는 것이 우리 聖人の 道이다. 莊子の 說은 물건이 그렇지 않은 것이 없고 물건이 옳지 않은 것도 없어서, 是…不是와 然…不然이 저것 또한 하나의 是非이며 이것 또한 하나의 是非라고 하여 …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迷藏의 계획을 얻으니, 그 장차 어떻게 天下에 立教하여 天下와 더불어 共由하겠는가?”³⁵⁾

이 글에서 淵泉은 莊子가 성인도 아니고 법도도 없다고 혹평하지만, 莊子의 齊物論에 나타난 글을 유가에서의 理와 氣의 관계에 비유해서 설명하면서 장자가 理致를 정밀하게 분석한 점을 칭찬하고, 또 나름대로의 견해가 있음은 인정하나, 是非를 가려 명확하게 實用에 措置하지 못함을 들어, 儒家와 유가적 입장에서 異端인 莊子の 說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淵泉이 同 讀書錄의 老家門 類序에서 “털끝만치라도 틀리면 그 오류가 천리를 간다”고 하여 老家를 경계한 것과 기본적인 시각면에서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왜 淵泉이 莊子를 수록했을까? 淵泉이 詩經의 “采葑采菲 無以下體”³⁶⁾라고 하고, “不以人廢言”이라고³⁷⁾ 하여 좋은 점은 항상 본받는 ‘君子的 大用心’을 상당히 존중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異端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淵泉이 동 목록에 莊子를 수록한 이유는 바로 그의 빼어난 文章 때문인 것이다.

35) 洪奭周, 鶴岡散筆, 卷 1, p. 43, b, c

莊周雖非聖無法 然其說理 有極精到者 齊物論言 非彼無我 非我無所取 此則儒家所謂有理以後有氣 非氣則理無所寓 … 天人理氣之妙 主靜養心之功 吾儒精義之所在也 而其言之圓合如此 亦不可謂無所見矣 然所貴乎見道者 欲以之措諸用也 是曰是 非曰非 有曰有 無曰無 瞭然而易知者 吾聖人之道也 莊氏之說則曰 無物不然 無物不可 是不是 然不然 彼亦一是非 此亦一是非 … 其爲不知者 迷藏之計則得矣 其將何以立教於天下 而與天下共由之哉

36) 洪奭周, 鶴岡散筆, 卷 5, p. 165

37) 洪奭周, 鶴岡散筆, 卷 4, p. 123 b

不以人廢言 聖人之訓也 … 然 一言之可採 採之焉可也 一事之有可擇 擇之焉可也

淵泉은 홍씨독서록의 해제에서도 “莊子の 文章은 先秦이래 없는 것”³⁸⁾이라고 하여 장자의 문장을 극찬하고, 鶴岡散筆에서도 淵泉은 莊子の 文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내가 戰國 이후 六朝의 諸子書에 이르기까지 格言과 秀句로 불만한 것을 뽑아서 諸子正言 7책을 만들었다. … 莊子를 수록하지 않은 것은 道는 背斥받으나 文章은 이루다 취할 수 없어서이다.”³⁹⁾

즉 淵泉은 장자의 道에는 문제가 있으나, 그의 빼어난 文章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四部誦惟目錄의 子部에서는 經部, 史部, 集部에서 와는 달리 著者名을 記入語로 잡은 事例를 보여 주고 있다. 실제로 이같은 淵泉의 시도는 현대적인 목록기입의 입장에서 살펴보아도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다.

論文 “韓國 資料의 書誌的 整理 方法에 있어서의 問題點”에서 家親께서는 중국의 古典名 중에 著者名과 書名이 똑같은 예로서 莊子를 들고 있는 것이다.⁴⁰⁾ 동 목록의 子部에서 淵泉이 著者名을 기입어로 잡은 것은 經部, 史部, 集部에서 사용한 기술원칙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목록기술의 통일성 면에서는 문제가 있으나, 재래의 서양식 목록규칙에 합일하는 것이며, 동시에 당시 淵泉의 목록학적인 배경이 얼마나 뛰어났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 명칭 자체가 書名이자 著者名이기도 한 莊子와 荀子는 그 書籍의 주요 篇名만을 선정하였으나, 周子, 張子, 程叔子, 朱子の 4개의 경우에는 著者名 標目 다음에 그 著者가 지은 單行本의 著作(예: 張子の 경우: 西銘)을 선정하여 열거하고 있다. 沈澐는 이 子部에 列記된 서적들을 “九經의 보조적인 것”⁴¹⁾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38) 주54) 참조.

39) 洪奭周, 鶴岡散筆, 卷 3, p.86 d

余嘗採戰國以後 至六朝諸子書 有格言秀句可觀者 爲諸子正言 凡七冊 莊子之不載 以道則在所擯 以文則不可勝取

40) 李載喆, “韓國資料의 書誌的 整理 方法에 있어서의 問題點”, 圖協月報, 第16卷 10號 (1975.12), p.11.

41) 洪吉周, 孰遂念

是唯九經之輔.

2.4.4 集部

集部에는 楚辭, 文選, 文苑英華, 唐宋八大家의 4종의 저록을 編纂年代順으로 배열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洪氏讀書錄의 集部 總集門에 수록된 저록이며, 앞의 3著錄은 同讀書錄 總集門의 맨앞에 나란히 배열된 것을 그대로 수록한 것이다.

이 집부에는 唐宋古文家의 글을 중심으로 (集部の 수록 文章 64종 중 43종으로 68% 차지함) 각 문장의 문체중에서 가장 훌륭한 문장을 선정하여 수록하고 있는데, 이 문체는 크게 辭賦, 漢魏先秦散文, 四六駢儷文, 唐宋古文的 4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屈原의 九歌, 卜居, 漁父와 登徒子好色賦(宋玉), 長門賦(司馬相如), 洛神賦(曹植), 恨賦(江淹), 哀江南賦(庾信) 등은 辭賦의 대표적인 것이며 ; 上秦王諫逐客書(李斯), 過秦論(賈誼), 報任少卿書(司馬遷), 答蘇武書(李陵), 報孫會宗書(楊暉) 등은 대표적인 漢魏先秦古文이며 ; 出師表(諸葛亮), 洛神賦(曹植), 陳情表(李密), 歸去來辭(陶潛), 廣絕交論(劉峻) 등은 駢儷體 문장의 대표적인 것이다. 이밖에 唐宋古文으로서 八大家의 文章 중에 가장 출중한 것만을 선정해서 수록하고 있다.

이 集部에서 특징적인 것은 唐宋八大家의 글 가운데 韓愈의 글을 유난히 많이 선정하고 있는 점이다.(전체 43종 중의 20종:47%)

淵泉은 鶴岡散筆에서 문장의 才, 氣, 力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내가 일찍이 말하건데, 文章은 재주(才)와 氣가 있어야 하며 또한 힘(力)이 있어야 한다. 재주는 고금에 차이가 없으나 힘은 차이가 있으며, 氣는 기를 수 있는데, 힘은 三代보다 강하지 못한지 오래이다. 秦漢의 文士와 韓愈, 柳宗元 두사람은 모두 능히 천균의 술을 들 수 있는 사람이다. 秦漢의 선비는 담소하면서 들 것이고, 韓愈는 낮빛을 엄숙하게 하고 소매를 걷고 들 것이며, 柳宗元에 이르러서는 숨을 헐떡거리며 맘을 홀리고 으라차하고 외쳐야 들 수 있을 것이다. 歐陽修와 蘇軾같은 사람은 또한 담소하면서 드는데 가깝다. 그러나 드는 것은 천균의 무게는 아닐 것이다.”⁴²⁾

42) 洪爽周, 鶴岡散筆, 卷 2, p.70d

予嘗謂 文章有才有氣 亦有力 才無古今而力則有之 氣則可養而力不可強 三代尚矣 秦漢之文士與韓柳二者 皆能舉千鈞之鼎者也 秦漢之上 談笑而舉之 退之則莊色矜容斂襟而舉之矣 至於子厚 喘息流汗而呼也許矣 若歐蘇者 亦幾乎談笑而舉之矣 然其所舉者 則非千鈞也.

즉, 淵泉은 文章의 요소를 才, 氣, 힘(力)의 3요소로 들고, 이중에 재주는 고금에 차이가 없으며, 氣는 기를수 있는데 힘은 차이가 있다고 하여 秦, 漢의 선비와 韓愈, 柳宗元, 歐陽修, 蘇軾 등 대 문장가를 문장의 힘 측면에서 비교하고 있다.

淵泉은 여기서 韓愈가 秦, 漢의 선비 보다는 못하나 柳宗元, 歐陽修, 蘇軾 보다는 한수 위라고 논평하고 있다. 또한 이말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集部에서 唐宋八大家의 文章을 수록함에 그 순차를 韓愈, 柳宗元, 歐陽修, 蘇洵, 蘇軾 등의 순서대로 배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왜 유독 唐宋八大家의 글 가운데 韓愈의 글을 많이 수록했을까? 그 이유는 淵泉이 鶴岡散筆에서 말한 다음 文句에 잘 나타나 있다.

“대저 문장을 지으려면 모름지기 韓愈를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⁴³⁾

“理勝辭達하여 氣로서 昌盛하니 이는 韓愈가 文宗이 되는 所以이다”⁴⁴⁾

淵泉은 韓愈의 文章을 극찬하고 있으며, 모름지기 문장을 지으려면 반드시 韓愈의 글을 배워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沆澗는 孰遂念에서 集部에 수록된 書籍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하고 있다.

“외골로 들어가거나 딱딱한 점은 楚辭가 고쳐주고, 견고하나 갖추지 못한 점은 文選이 고쳐주고, 담백하나 민멸한 것은 文苑英華가 고쳐주고, 放慢하여 법도가 없는 것은 唐宋八大家가 고쳐줄 것이다.”⁴⁵⁾

즉, 선비가 楚辭, 文選, 文苑英華, 唐宋八大家에서 선정한 글을 읽을 경우의 독서의 효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淵泉이 동 목록의 集部에 수록한 문장은 각 文體의 文章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

43) 洪奭周, 鶴岡散筆, 卷 2, p.70a

夫爲文章 固不可不學韓

44) 洪奭周, 鶴岡散筆, 卷 2, p.70a

理勝辭達 而昌之以氣 此韓愈氏之所以爲文宗也

45) 洪吉周, 孰遂念

專而滯 楚辭弊 因而變 選賢 淡而泯 英華弊 放而不度 八家弊.

으로서 文章 學習에 가장 기본적인 것만을 선정한 것이다.

3. 結 言

본 논문은 麗韓十大文章家의 하나인 淵泉 洪奭周(1774-1842)⁴⁶⁾가 50대 후반에 그의 季弟 海居의 독서생활을 진작시켜주기 위해서 經, 史, 子, 集 四부의 著錄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을 精選한 誦讀目錄인 四部誦惟目錄의 구체적인 내용을 考究하기 위해서 쓴 글이다. 이 글에서는 同目錄의 題目풀이, 編纂時期, 編纂動機, 內容分析으로 4대별하여 그 실상을 구명하였는데, 그 考究結果는 다음과 같다.

四部誦惟目錄의 제목에 나타난 '誦惟'란 말은 '誦讀하고 다시 그 의미를 思惟한다'라는 의미로서 독서의 핵심적인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四部誦惟目錄의 編纂時期는 同目錄이 수록되어 있는 執遂念의 編纂時期를 먼저 규명한 후에 이를 유추하여 同目錄의 편찬시기를 추정하였다.

四部誦惟目錄이 수록된 執遂念에는 纂述 動機와 더불어 40여세에 책을 저술했다는 말만 나오고 정확한 編纂年度는 나오지 않고 있다. 또한 沆瀁의 저작 標題乙樓와 沆瀁丙函도 조사해 보았지만 執遂念과 四部誦惟目錄의 정확한 편찬년도는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標題乙樓에 수록된 題恒網詩卷에서 執遂念의 정확한 편찬년은 아니지만 그 대강의 시기를 짐작할만한 기사를 찾을 수 있었다. 朴珪壽가 1830년 봄에 七言長篇을 짓고 그 제목을 執遂念行이라고 명명한 것이다. 이로 보아 執遂念의 편찬년도는 朴珪壽가 七言長篇을 짓기 전 해인 1829년 또는 그 2, 3년 전에 편찬한 것이다. 따라서 執遂念안에 수록된 四部誦惟目錄의 편찬시기 또한 執遂念의 편찬시기와 동일한 1829년으로 잡아 주었다. 이때 淵泉의 나이는 沆瀁 보다 12세 위이므로 56세이며, 海居는 沆瀁 보다 나이가 7세가 어리므로, 海居의 나이는 37세가 된다. 따라서 이 四部誦惟目錄은 淵泉이 50대 후반에 30대 후반이 된 季弟 海居를 위해서 편찬한 것이다.

이 四部誦惟目錄의 편찬 동기는 淵泉이 그의 季弟 海居가 讀書에 뜻을 있으나 讀書을 새로 시작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보아 너무 늦어서, 四부의 書籍을 두루 다 읽

46)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어한심가문초, 서울 : 민족문화추진회, 1978.

을 수 없다는 사정을 듣고, 經, 史, 子, 集 전 주제분야의 서적 중에 이들 각각의 주제 분야를 대표할만한 가장 중요한 서적을 선정하고, 이들 선정된 서적 가운데 誦讀할 부분 즉, 가장 核心的인 부분만을 정선하여 편찬한 것이다. 그러나 그 편찬동기의 이면에는 淵泉 자신 및 자신과 같이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쇠약해진 사람들의 독서생활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미 편찬해 놓은 것 가운데 일부를 선정해서 同目錄을 편찬한 것이다. 따라서 同目錄은 淵泉이 이전에 만들어 놓은 四部誦惟目錄의 縮約本일 가능성이 높다.

四部誦惟目錄은 經部, 史部, 子部, 集部の 4部로 구성되었으며, 총 26종의 저록이 수록되어 있다. 經部가 10종, 史部가 6종, 子部가 6종, 集部가 4종이다. 각 部內에서는 門(類)과 目(屬)의 계층 구분 없이 곧 바로 書名을 기입한 후에 그 저록의 내용 중에서 선정한 篇 및 章 또는 主要 文章의 머리 부분을 기입하고 있다.

四部誦惟目錄은 洪氏讀書錄 보다 19년 후에 편찬된 것이다. 淵泉이 同目錄을 편찬했을 당시에 洪氏讀書錄을 저본으로 참조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同目錄의 내용을 각 部 別로 同讀書錄과 연계해서 고찰하였다.

經部에는 10종의 저록이 수록되어 있다. 經部에 있어서 저록의 배열순차는 비록 類目名의 표시는 없지만 洪氏讀書錄에 나타난 類目の 순차와 동일하였다. 양 목록의 차이점은 左氏春秋傳을 同讀書錄의 경우와 같이 經部 春秋門에 수록하지 아니하고 史部에 들어서 수록하고, 小學門과 樂門에 들어간 저작이 선정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史部에는 左氏春秋傳, 國語, 戰國策, 史記, 漢書, 後漢書의 6종의 著錄이 수록되어 있는데, 洪氏讀書錄에서의 類目排列 順次와는 달리, 단순히 著者の 先後學順으로만 배열하였다. 史部에서 특기할만한 것은 同讀書錄의 經部 春秋門에 수록한 左氏春秋傳을 經部에 포함시키지 않고, 史部の 제일 앞에 놓은 점이다.

子部에서는 莊子, 荀子, 周子, 張子, 程叔子, 朱子の 6개의 저록을 시대순으로 배열하였다. 이 子部에서 주목할만한 사항은 바로 莊子の 문제이다. 淵泉이 동 목록에 莊子를 수록한 이유는 바로 그의 빼어난 文章 때문이다. 淵泉은 洪氏讀書錄의 해제와 鶴岡散筆에서 莊子の 文章을 극찬하고 있다. 한편, 子部에서는 經部, 史部, 集部에서와는 달리, 著者名을 記入語(標目)로 잡은 事例를 보여 주고 있는데, 이는 재래의 서양식목록규칙에 합일하는 것이기도 하다.

集部에는 楚辭, 文選, 文苑英華, 唐宋八大家의 4종의 저록을 編纂年代順으로 배열하고 있다. 淵泉은 唐宋古文家의 글을 중심으로 각 문장의 문체 중에서 가장 훌륭한 문장을 선정하여 수록하고 있는데, 그 문체는 크게 辭賦, 漢魏先秦散文, 四六駢儷文, 唐宋古文的 4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특징적인 것은 唐宋八大家의 글 가운데 韓愈의 글을 유난히 많이 선정하고 있는 점이다.(전체 43종 중의 20종:47%)

四部誦惟目錄에 수록된 저록을 洪氏讀書錄과 대조해 본 결과 洪氏讀書錄에 모두 수록되어 있었다. 經部 내에서 著錄排列順序가 동일한 점, 범위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同一主題下에서 著錄을 編纂年代順으로 排列한 점등은 同讀書錄과 동일하였으며, 史部와 集部の 경우에도, 同讀書錄의 別史門과 紀傳目 및 集部の 總集門에 함께 배열된 저록을 그대로 발췌하고 있는 점 또한 동일하다.

이상으로 미루어 보아 淵泉이 四部誦惟目錄을 편찬할 때 洪氏讀書錄을 참조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洪氏讀書錄의 經部에 수록한 左氏春秋傳을 史部에 수록하고 子部의 저록 가운데 道家의 莊子를 선정하여 수록한 점은 특이하다. 이밖에 동 목록에서 韓國人 著作을 1種도 수록하지 않은 점도 특이한 점이다. 그러나 同目錄은 우리나라에서 壯年 내지 老年層을 대상으로 편찬한 最初의 誦讀目錄이며 아직까지 唯一한 것이다.

참고문헌

1. 原典類

- 朴珪壽, 韓國學文獻研究所編, 朴珪壽全集 上, 下, 影印本, 서울 : 아세아문화사, 1978.
- 洪吉周, 孰遂念, 16卷 5冊 延世大學校 中央圖書館 所藏本
- 洪吉周, 縹鱗乙幟, 16卷 7冊 延世大學校 中央圖書館 所藏本
- 洪吉周, 沆瀣丙函, 7冊(第 3冊缺) 延世大學校 中央圖書館 所藏本
- 洪奭周, 淵泉全書, 影印本, 서울 : 旴晟社, 1984, 7冊
- 洪奭周, 淵泉集, 京城 : 韓光洙 邸, 明治 44 (1911), 鉛活字本
- 洪奭周, 春秋備考(淵泉全書, 影人本, 卷 7) 서울, 旴成社, 1984
- 洪奭周, 洪氏讀書錄, 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 想白文庫 所藏本.
- 洪奭周, 鶴岡散筆(淵泉全書, 影人本, 卷 7) 서울, 旴成社, 1984
- 洪顯周, 淵泉先生家狀(淵泉先生文集, 奎藏閣本, 卷 44)
- 洪顯周, 海居齋詩鈔, 延世大學校 中央圖書館本

2. 其他

-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여한십가문초, 서울 : 민족문화추진회, 1978.
- 李尙鏞, 洪氏讀書錄의 分類體系와 目錄記入法에 대한 研究, 서울, 1987.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李載喆, "韓國資料의 書誌의 整理方法에 있어서의 問題點", 圖協月報, 第16卷 10號 (1975.12).

ABSTRACT

A study on the Sabu-Songyu-Mongnok(四部誦惟目錄),
or a Classified Catalogue for Recitation
and Appreciation of Classics

Sang-Yong Lee*

This paper is written to clarify the specific details of the Sabu-Songyu-Mongnok(四部誦惟目錄), which is a reading list for recitation and appreciation of Chinese classics edited by Hong Suk-Chu(1774-1842) when he was 56 years old for the stimulation of his younger brother Hyun-Ju(1793-1865)'s reading life. In this study the catalogue's title interpretation, the time of the editing, the motive for the editing and the analysis of the contents are revealed as what they actually are.

The main details are as followings.

There is no date written on the Sabu-Songyu-Mongnok but the writer estimate it to be around 1829.

After Hong Suk-Chu recognized the fact that although his younger brother Hyun-Ju was interested in reading but felt that he was a little too old to begin to read all the books of the whole classes, he selected the classic works from whole subjects, i.e. history, philosophy and anthology, that he thought which would best represent each subject. From these selected works he then picked out the most important chapters or parts of the works. Another motivation of the editing was for the stimulation of the reading life for Hong Suk-chu himself and for people like himself who were getting old and losing their vitality.

The Sabu-Songyu-Mongnok consists of four categories, i.e. classics category,

* Ph. D. Candidate,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Yonsei University.

history category, philosophy category and anthology category, and in the catalogue, 26 different works are entered. The classics category has ten, the history category has six, the philosophy category has six and the anthology category has four. Each of the works are entered under the title of the book, and then the chapter heading.

The Sabu-Songyu-Mongnok was edited 19 years later than Hong-ssi toksorok(洪氏讀書錄), or an Annotated Bibliography of Korean and Chinese Books. Comparing each category of the catalogue with the Hong-ssi toksorok, the writer could catch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1. Although there was no indication of the class heading, the sequence of the arrangement of the entries in the classics categories was the same as the sequence of the classes in the Hong-ssi toksorok.

2. The Zuo-shi Chun-qiu-zhuan(左氏春秋傳) is recorded in the class of Chun-qiu of the classics category in the Hong-ssi toksorok, but in the Sabu-Songyu-Mongnok, it belongs to the history category.

3. In the philosophy category of the catalogue, Chuangtzu(莊子)'s writings are included because it is so well written.

4. Unlike the categories of classics, history and anthology, the philosophy category is recorded under the author's name. This is fascinating because it unites with the conventional cataloguing practice of the west.

5. In the anthology category, the writings with the best styles from the Chu-ci(楚辭) or the poems of Chou, Wen-xuan(文選), wen-yuan-ying-hua(文苑英華) are selected and classified into four parts: (1) poems, (2) proses of Han, Wei and Pre-Qin dynasties, (3) Si-liu-pian-li-wen(四六駢儷文), (4) classic style of writings of Tang and Song dynasties(唐宋古文).

6. There was an unusually large number of Han Yu's writings selected from the great eight poets of Tang and Song dynasty writings. (20 categories out of 43: 47%)

After comparing the entries of the Sabu-Songyu-Mongnok, it can be concluded

that all the entries were also included in the Hong-ssi toksorok. The fact that the sequence of the entries in the classics category and that the literary works were sequenced under the same subject by the year of editing or writing like as the Hong-ssi toksorok

Also it is unusual that there was not even one literary work of a Korean in the catalogue. Anyhow this catalogue is the first recitation catalogue in our country that was edited for the people in the prime of life as well as for old people and is the only one existing today.